

뜨거워진 민주 경선...분주해진 文·安·李

문재인, 안보자문단 발족
안희정 “탄핵 기간엔 끔찍”
이재명 “위키리크스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선거인단 모집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등 예비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우선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는 22일 안보자문단을 발족하며 ‘강한 안보론’을 기치로 ‘대세론’ 확산에 나섰다.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김정남 피살로 조기대선 국면에서 안보정국이 형성된 가운데 안보 이슈 선점으로 안경장을 부각하려는 포석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국방안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인 ‘더불어국방안보포럼’에 참석해 안보 분야 비전을 제시했다.

지난 16일 전직 외교관들로 구성된 외교자문단을 공개하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한일 외교 마찰 등 급변하는 외교 정세에 대응하는 카드를 제시한 데 이어 ‘외교·안보 구상 2탄’인 셈이다.

포럼에는 장성 50명, 영관급 71명, 위관급·부사관 15명, 여군 14명, 교수·변호사·당내인사 등 민간 35명 등 지금까지 175명이 모였다. 문 전 대표는 교수 집단을 중심으로 한 싱크탱크 ‘국민성장’을 축으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장·차관을 지낸 인사들로 국정자문단 ‘10년의 힘 위원회’를 꾸리는 등 ‘인수위원회 없는 정부’를 대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안희정 총남지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2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안보포럼 행사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기각을 상정하지 않는다. 끔찍한 사태”라고 밝혔다.

탄핵 이후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통합을 위해 촛불집회 참석을 자제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을 단결하게 하는 것은 헌법적 규정과 과정에 승복하는 것”이라며 “(탄핵) 결과가 나오면 통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연정 제안에 대해서는 “개혁과제에 동의하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정경유착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특수 권력이 아닌 행정부의 리더 역할만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협치 수준



안희정 총남지사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연정과 관련한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남 피살’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그러나 남북 대화의 끈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남북 정상회담도 언급하며 “대화가 되면 서울로도 초청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가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일에는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지만, 저의 잘못”이라면서도 “국민에 의해 일정 정도 정치적 사면복권을 받은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국판 ‘위키리크스’를 들고 나왔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이재명 성남시장이 22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대의원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북에 “용감한 내부제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게 현실”이라며 “위키리크스처럼 제보자가 누군지 드러나지 않는 사이트와 이메일을 만들고 대통령에게 핫라인으로 연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수시로 체크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익신고자지원재단·기금 설립, 부패고백위원회(양심고백위원회) 설립, 신고자보호법 제정, 권익위 독립성 확보, 불이익을 당한 신고자에 대한 상담 제도의 도입, 위임신고제 도입, 불이익 처분에 대한 제재 강화, 징벌적배상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문동기자 tuim@kwangju.co.kr

남경필 “유승민, 차라리 새누리로 가라”

SNS에 보수 후보 단일화 주장 비판...“당 정체성 훼손”

바른정당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보수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는 당내 경선 경쟁자 유승민 의원에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남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유승민 의원을 위한 충고’라는 글에서 “국정농단세력과 후보 단일화를 포기할 수 없는 유 의원이자 차라리 새누리당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최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진영 정당과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비판이다.

남 지사는 “남은 세력을 바라보는 유 의원의 정치적 계산을 어느 정도 이해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길은 바른정당이 걷고 있는 길이 분명히 아니다. 정체성을 훼손하는 해당 행위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바른정당은 모든 동지가 머리를 맞대 국정농단 세력과의 연대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남은 길은 바른정당의 창당 정신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당의 근본적 정체성, 태생, 앞으로의 방향, 총의가 모아진 데 대해서는 함께해야 당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리얼미터 대표 “숨은 보수 10~15%”

자유한국당 토론회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과 탄핵 반대여론의 차이를 고려할 때 10~15%가량은 숨은 보수표심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사이 보수,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기술어진 운동장’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사이 보수는 분명히 있다”며 이 같이 분석했다.

그는 근거로 탄핵 직전 박 대통령 지지율이 5%로 마감된 반면 탄핵 반대 여론이 20%가량으로 나타나는 점을 들었다. 또 2012년 당시 박 대통령의 실제 득표율은 51.6%였으나 최근 조사에서 박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는 37.3%에 불과해 약 14%포인트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숨어버린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다만, “사이 보수가 있다고 해도 ‘기술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도

나을 정도로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10~15% 정도 사이 보수를 반영하더라도 큰 격차를 이겨낼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인용 여부와 대선 시기, 탄핵이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의 구속 여부, 대선 구도 등 앞으로의 정국 변화에 따라 사이 보수의 사이즈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장수 미래경연연구소장은 “모든 것을 언론·여론 주도층 탓으로 돌리고 사이 보수를 들먹이며 막연한 희망을 던져서는 안 된다”며 “안보 불안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 득표권과 현실 안주성향, 패배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욱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이 보수는 ‘양날의 검과 같다’며 “사이 보수가 보수당에 희망을 주는 긍정적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일종의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룰 전쟁’ 돌입...安-孫측 팽팽

대리인 참석 첫 회의 모바일 투표 신경전...이달내 확정기로

국민의당이 오는 28일까지 경선룰을 확정기로 하고 공정한 경선 관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 관리를 위탁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대선기획단 경선룰TF는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내 대선주자인 안철수, 손학규, 천정배 전 대표 측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했다. 안 전 대표 측 대리인은 김철근 캠프 대변인, 손 전 대표 측은 윤석규 전 청와대 시민사회국장, 천 전 대표 측은 부좌현 당 정치연수원 원장이 각각 맡았다.

이들은 첫날부터 각 후보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다. 김철근 대변인은 “왜 경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며 “정권교체를 위한 본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는 경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민심과 당원들의 당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경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규 전 시민사회실장은 모바일 투표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윤 전 실장은 “더민주의 경선을 보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치열한 편법과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평등성과 기밀성 원칙을

다 무시하는 경선이 치러지고 있다”며 “새로운 개혁정당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그러한 경선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좌현 원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선을 마련을 강조했다. 부 원장은 “우리당이 경선을 통해 강력하고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내는 그런 합리적이고 공정한,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 따라서 우리 국민이나 당원들이 보기에 합당하고 객관적인 경선룰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 후 이용호 당 대선기획단 경선룰TF 팀장은 “시기의 촉박성을 고려해 2월28일까지 경선룰을 확정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무성 빠진 빅텐트 논의

김종인·정의화 비공개 회동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회동했다.

김 전 대표와 정 전 의장은 ‘분권형 개헌’에 공감하고 있으며 “국회 특위에서 제기되는 이원집정부제에 동의하고 있다”고 정 전 의장이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들은 1시간 가까이 진행된 비공개 대화에서 “개헌을 꼭 해야 한다”,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등의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권형 개헌을 고리로 한 ‘빅텐트’를 어떻게 꾸릴지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향뉴스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

경매/매매

풍암동 중심 상가

매매가격 1,650,000,000

대지 400평, 건물 100평

서구 동천동 공장 창고

대지 370평 최저가 681,578,000
건물 97평 감평가 1,217,104,900

서구 매월동 상가 사무실

대지 261평 최저가 1,450,531,000
건물 458평 최고가 2,072,187,000

문화의전당 옆 오피스텔

대지 215평 최저가 1,492,071,000
건물 467평 감평가 2,131,071,000

중흥동 상업지역 토지

대지 612평 최저가 2,126,985,000
 감평가 3,038,985,000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대지 91평 최저가 425,000,000
건물 340평 최고가 948,794,100

화정동 상가사무실

대지 48평 최저가 382,407,650
건물 160평 감평가 382,407,650

운정동 기전빌라

22평형 6가구 (수역성 아주중음)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용자 6,000만원 월세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층

감평가 9,000만원
금 매매 6,2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

010-8559-8905 이용국 팀장

공인중개사 부동산경.공매컨설팅
초보자 00명 모집 062)232-9994

010-3070-2147 유 여사